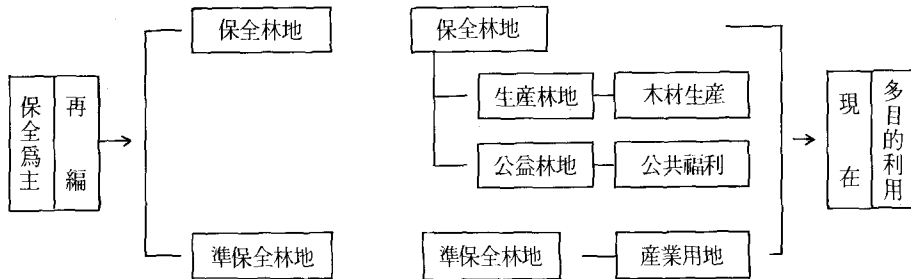


山地利用·管理體系整備

1. 山地利用體系再編 推進

○基本構想



○林地別區分基準(案)

-生産林地

- 법령상 伐採·施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
- 기계화작업이 가능한 산림
- 土壤이 肥沃하고 標高가 높지 않은 산림

-公益林地

- 公園 등 법령에 의하여 保全用途로 지정된 산림
- 생산임지외곽의 高山地·急傾斜地·稜線部 산림

-産業林地

- 開發用途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거나 開發의 可能性이 높은 산림
- 生産林地 및 公益林地로 지정되지 아니한 산림

○林地別 管理方向

-生産林地：林産物生産中心의 山林經營

- 2000년대의 木材生産供給基地化
- 정부보조, 융자, 세제의 集中的인 支援
- 산주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規制緩和
- 放置山林은 임업협동조합등을 통한 委

託 및 代執行

-公益林地：山林環境保全과 林業生産機能의 증진

- 산림의 公益機能에 적합한 산림으로 造成·管理
-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쾌적한 山林休息空間 제공
- 국고 및 지방비를 투자, 政府主管으로 實行

-産業林地：産業用地的 供給과 山林經營의 병행

-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開發地域 및 他用途 轉用可能 山林
- 택지·공장용지 등 産業用地로 우선 供給
- 개발미확정임지는 영림계획에 따라 山主自力으로 山林經營

2. 山林資源의 管理體系 確立

○山林資源管理指針의 작성

-공원·그린벨트 등 山林法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指定·決定된 山林資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목적에 따른 自然景觀의 保全, 水源의 涵養, 災害豫防등의 山林機能이 충분히 發揮될 수 있도록 산림의 유형별로 『山林資源管理指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토록 지도·감독

○遊休土地의 산림으로의 還元

-농촌인구의 감소등으로 廢耕地등 유휴토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유휴토지의 대부분은 山林을 開墾하여 경작지 등으로 활용한 토지임을 감안하여

-유휴토지중 현재의 利用狀態나 地理的 與件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復舊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勸奨하고

-이에 소요되는 造林·育林事業費 등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복구』를 추진

기능별	임지별 관리방향		
	생산임지	공익임지	산업임지
주기능	임산물생산기능의 증진	산림환경보전기능 증진	산업용지의 공급
부기능	산림환경보전기능 증진	임산물생산기능의 증진	임업생산 및 환경보전기능의 증진

〈參考1〉

現行 山地利用區分 現況

(單位：ha)

林地別	要因別	面積	構成比(%)		
合計		6,493,335	100	100	
保全林地	計	4,901,338	75	100	
	法定保全林地	小計	2,988,742	46	61
		• 自然公園	377,981	6	8
		• 保安林	2,6,359	3	4
	• 文化財保護區域	33,537	1	1	

林地別	要因別		面積	構成比(%)	
		• 寺刹林	26,659	-	1
		• 天然保護林	4,623	-	-
		• 採種林	1,313	-	-
		• 試驗林	16,964	-	-
		• 休養林	51,836	1	1
		• 要存國有林	762,252	12	16
		• 林業振興促進地域	1,507,217	23	30
		其他 保全林地	1,912,596	29	39
準保全 林地	計		1,591,997	25	100
	開發 計 劃 地 域	小計	586,284	9	37
		• 都市地域	491,529	7	31
		• 農地開發促進地域	20,493	-	1
		• 草地造成地區	30,027	1	2
		• 電源開發區域	1,139	-	-
		• 産業基地開發區域	5,951	-	-
		• 宅地開發豫定地區	2,413	-	-
		• 工業團地	1,216	-	-
		• 工業誘致地域	360	-	-
		• 工業開發獎勵地區	264	-	-
		• 水没地區	4,767	-	-
• 開墾地域	28,097	1	2		
	其他 準保全林地	1,005,713	16	63	

※ 註 要因別 面積은 相互重復面積을 除外한 實面積임

參考 2

山林의 他用途 轉用現況

用途	'88			'89			'90		
	計	保 全	準保全	計	保 全	準保全	計	保 全	準保全
合 計	6,293 (100)	2,459 (39)	3,834 (61)	8,369 (100)	4,340 (52)	4,029 (48)	10,488 (100)	5,753 (55)	4,735 (45)

農業用	計	2,666	1,037	1,629	1,992	879	1,113	901	401	500
	農地	1,534	437	1,097	995	281	714	420	143	277
	草地	1,132	600	532	997	598	399	481	258	223
非農業用	計	3,627	1,422	2,205	6,377	3,461	2,916	9,587	5,352	4,235
	宅地	235	31	204	600	117	483	658	41	617
	工場	691	42	649	865	135	730	1,435	308	1,127
	墓地	44	12	32	50	8	42	150	90	60
	골프장	1,308	851	457	1,927	1,873	54	4,512	3,726	786
	스키장	8	-	8	190	188	2	47	5	42
	其他	1,341	486	855	2,745	1,140	1,605	2,785	1,182	1,603

用途	'91			'92			平均			
	計	保全	準保全	計	保全	準保全	計	保全	準保全	
合計	7,883 (100)	3,072 (39)	4,811 (61)	9,263 (100)	3,612 (39)	5,651 (61)	8,459 (100)	3,847 (47)	4,612 (55)	
農業用	計	827	298	529	814	314	500	1,440	586	854
	農地	404	93	311	405	114	291	752	214	538
	草地	423	205	218	409	200	209	688	372	316
非農業用	計	7,056	2,774	4,282	8,449	3,298	5,151	7,019	3,261	3,758
	宅地	698	44	654	817	67	750	602	60	542
	工場	1,578	374	1,204	1,716	563	1,153	1,257	284	973
	墓地	109	32	77	73	34	34	85	36	49
	골프장	1,562	967	595	1,528	238	238	2,167	1,741	426
	스키장	98	98	-	154	27	127	99	63	36
	其他	3,011	1,259	1,752	4,161	1,312	2,849	2,809	1,077	1,732

※ ()内는 比率임

산림법 개정안 주요 골자

산림청은 지난 11월 중순 산림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①산지 이용구분체계를 세분화 하고 ②입산통제구역 입산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③

산지과수재배시 분수제도의 도입 ④ 독립
가나 임업후계자에게는 임산물생산 및 반
출허가제를 폐지하고 자기생산표만 붙여서
반출이 쉽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다고 밝혔다.

① 현행 산지이용구분체계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단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목
재생산을 위주로 하는 생산임지, 국민보전
향상을 위한 공익임지, 다목적 산업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산업임지로 세분화하여 다
양한 산지이용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② 제재시설등 임산물가공시설시 산림법
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각각 등록하던 것을 산림법상 등록제
를 폐지하여 행정편의를 도모도록 하였으
며, 입산통제구역입산시 영림서장, 시장, 군
수의 허가를 신고로 완화하였다.

③ 또한 지금까지는 조림목적에 한하여
분수(정부 1, 농민 9) 제도를 인정했으나 과
수재배시에도 가능토록 확대했다.

④ 한편 지금까지는 영림서장, 시장, 군수
의 목재생산 확인용 검인 및 생산확인표를
첨부해야 유통할 수 있던 것을 독립가나 임
업후계자는 자가생산 확인표만 첨부하면 자
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완화하였다.

⑤ 또한 산림을 대지나 농경지 등으로 불
법전용후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다시 산

림으로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심
사 과정을 거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대
로 형질변경을 하도록 하였다.

- 최근 세계보전연맹(IUCN)에서는 종의
멸종위험 분포범위를 10km² 이하에서 20,00
km² 이하로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 따라서 산
림생태계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바
탕에서 산림을 이용하고 국토이용계획을 수
립해야 산업도 발전 시키고 자연환경도 보
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산림생태계의 역할 제고방안에 대하여
는

-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각국은 단순한
보호가 아닌 적극적인 보전의 의미로서 자
원보전과 낙후지역 균형 개발까지도 항상
고려하고 있다. 사실 모든 국제환경협약의
기본철학인 '지속가능한 개발'도 임업에서
는 옛날부터 '보속성'이라는 정신으로 지
켜왔던 것이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에서
는 현 세대의 생존 뿐 아니라 차세대의 생
식이 가능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이동도 가
능하여 개체군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의 산맥구조와 물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태계 연구
를 강화하여 국토이용계획에 적극적으로 반
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산림생태계의 역할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최근 지구환경악화
로 생물서식지의 훼손이 증가함에 따라 생

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과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 결과를 밝혔다.

○산림청 임업연구원 산림생태연구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종수는 약 1천만~5천만종, 과학적으로 확인된 지구상의 종수는 약 140만종, 매일 멸종되는 종수는 약 100종, 한국에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종수는 약 4만종이상, 한국의 확인 종수는 2만 2천종이라고 밝히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산림의 역할에 대하여는

-생물다양성을 제대로 보전하려면 그 생물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 뿐 아니라 서로 생식이 가능하여 개체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태적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전국 곳곳으로 뿔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연계망을 이룰수 없어, 한반도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미치는 산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이는 이번 제 1차 생물다양성협약 정부간 위원회(스위스 제네바, '93. 10월)에서도 거론되었다.

-이때 단순한 종수 뿐 아니라 종조성도 감안해야 될 것인데 생물다양성 보전에 의미가 있는 산림생태계의 최소 크기는 학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250km²에서 10,000km²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산업화·공업화에 따라 많은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2000년대의 우리 산림의 모습

산림청은 현행 산지관리제도의 개편과 해외조림확대등 산림자원의 계획적 관리로 목재자급율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 확충을 통하여 산림소득증대와 쾌적한 산림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밝힌 주요 내용을 보면,

-현 산지이용체계를 기능과 목적에 따라 생산임지, 공익임지, 산업임지로 개편하고

-목재의 자급을 향상과 장기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700천ha의 해외조림 실시

-임도망의 확충과 기계화 촉진으로 임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환경림조성과 수목원, 산림박물관, 자연휴양림을 확대 조성하여 국민 휴양공간을 제공하며

-간벌재의 공급확대와 산지인산, 약용식물, 야생화등 새로운 소득작목개발로 산촌 소득향상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산림의 주요장기지표-

지표/구분	단위	'92	'98	2040
인공림율	%	31	34	50
임목축적	m ³ /ha	42	59	135
목재자급	%	12	16	60
임도연장	천km	48	16	56
임업생산	10억원	825	1,905	12,720
산림의 공익기능	억 원	27조6천	-	90조4천

○50년후(2040)의 우리 산림의 모습은
 -전국 산림은 경제림 위주로 조성되고
 임목축적이 증대되어 목재자급율은 크게 높
 아질 것이며
 -산림의 공익기능은 획기적으로 개선되
 고
 -산림의 경영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임업

도 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촌의 실
 질적 소득이 보장 될 것이며
 -산지가 기능별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국토의 모습은 푸른숲에 둘러싸
 인 도시, 경제림이 울창한 농촌으로 선진
 국 수준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제 3 세대의 목질재료 “중밀도섬유판”의 성능개선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앞으로 제3세대의
 목재로서 “중밀도섬유판”이 주역으로 등장,
 그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 중밀도섬유판
 의 성능개편 연구를 통하여 내구성등 각종
 성능을 개선시켜 건축용 또는 특수용재로
 서의 개발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임업연구원 목질재료연구팀은 목재, 합
 판에 뒤이은 제 3세대 목질재료의 주역으
 로서 “중밀도 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의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
 이의 각종 성능을 크게 개선하였다고 밝히
 고,

○이 중밀도섬유판(MDF)은 현재 국내
 수요량의 약 60%를 자급하고 있으나 내구
 성면에서 다소 떨어지고 있어, 이번에 다양
 한 방법에 의하여 내구성을 비롯, 물리적·
 기계적 성능이 우수한 MDF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국내목재자급율을 향상시키고 목
 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산
 간벌소경재로 MDF 제조연구를 한 결과,
 외관뿐 아니라 제품의 강도나 내구성면
 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MDF는 유리섬유나 탄소섬유를 나
 무섬유와 혼합 또는 적층방식에 의해 복합
 화 할 경우 재료의 난연성(불에 안타는 성
 질)등이 크게 향상되고 특히 탄소섬유나 철
 섬유를 복합시켰을때는 컴퓨터를 비롯한 각
 종 전기제품, 고전압기기에서 발생하는 인
 체에 유해한 전자파의 차폐효과가 매우 우
 수하므로 앞으로 생활 재료, 환경재료로서
 는 물론, 고내구성 및 다기능성의 첨단재
 료로서 널리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